

“BK 같다” “한국 최고 투수” ... 으리으리한 찬사

〈김병현〉



**KIA 이의리 6이닝 10K 무실점
고졸 루키 첫승에 야구계 '들쭉'**



“BK(김병현)를 떠올리게 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 투수다.”

지난 28일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날 선발로 나온 ‘고졸루키’ 이의리가 6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4-0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4번째 등판 만에 승리투수가 된 이의리는 거침없는 탈삼진쇼까지 펼쳐 이목을 끌었다.

경기 시작과 함께 ‘K’가 기록됐다. 1회 선두타자 정은원에게 볼 3개를 던졌지만 이어 3개의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집어넣으면서 첫 탈삼진을 완성했다.

그리고 1회 2사에서 노시환의 방망이를 헛뜰게 한 뒤 4회 9번 타자 박정현까지 6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들러세웠다. 이어 정은원에게 첫 피안타를 기록했지만 장운호의 삼진으로 3회를 끝냈다.

이의리는 5회와 6회에도 탈삼진 하나씩 더해 삼자범퇴를 만들며 6이닝 2피안타 1볼넷 10탈삼진 무실점, ‘10K’ 등판을 끝냈다.

KIA 윌리엄스 감독 “신인답지 않은 배짱 과거 김병현 떠올리게 했다” 이순철 해설위원 “투구폼·구속·체인지업 완벽 ... 현재 이런 선수 없어”

이의리는 “체인지업이 비결이다. 감이 점점 좋아지면서 스트라이크도 던질 수 있게 됐다”며 “초반에 밸런스가 안 좋아서 직구가 날렸는데 김민식 선배가 계속 체인지업으로 이끌어줘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부모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승리투수가 된 이의리는 ‘효심’ 가득한 소감을 밝혔다.

이의리는 “부모님이 야구장에 오셨다. 앞으로도 계속 잘 던져서 돈 많이 벌어드리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답답한 고졸루키와 달리 야구인들은 최고의 찬사로 ‘특급 좌완’의 탄생을 반기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에게도 미소를 머금게 하는 피칭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29일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나 “앞선 경기에서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어제는 1회부터 바로 잡고 던졌다”며 “부담스럽거나 압박감을 받지 않고 던지는 게 인상적이다”고 칭찬했다.

신인답지 않은 배짱과 노련함을 보여주는 이의리는 빅리그에서도 특별했던 ‘BK’ 김병현을 떠올리게 했다.

“이의리와 같은 멘탈의 신인 선수를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윌리엄스 감독은 “여기 출신이다”며 웃은 뒤 김병현의 이름을 꺼냈다.

그는 “다이아몬드 백스 왔을 때 똑같은 정신력을 봤던 것 같다. 피아자를 상대하는 모습이 생각난다. 마치 10년 정도 된 선수가 던지는 느낌이었다”고 언급했다.

할 말은 하는 ‘독설가’ 이순철 SBS 해설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위원은 “구속은 물론 현재 KBO리그에서 이런 구위를 보유한 선수가 없다. 좌투수라는 이점도 있지만 19살 선수가 엄청 안정되게 공을 던진다”며 “구종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포심에 상대 헛스윙을 유도해낼 수 있다. 투구폼도 흡잡을 데 없다. 기본기에서 벗어난 게 없다”고 언급했다.

는데 그 완성도가 중요하다. 볼 5개를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도 “체인지업을 주로 유인구로 쓰는데 카운트 잡을 때도 쓸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포심이 빠르고 좋으니까 체인지업을 유인구로 써도 끌려나온다. 완벽한 투구폼, 완벽한 구속, 완벽한 체인지업으로 상대를 괴롭히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린 선수인 만큼 이닝과 투구수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

이 위원은 “아직 나이 어린 선수다. 이닝과 투구수를 조절하면서 기용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만 잘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게는 공포의 투수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몸상태’를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

28일 경기에서 고졸 신인 최초의 선발 전원 탈삼진 기록에 하주석이 남아있었지만 85구에서 등판을 마무리하게 하면서 깔끔한 승리를 지켰다.

이의리도 “처음에는 가운데만 보고 던져서 삼진 나왔는데 생각 안 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하다 보면 볼개수가 많아지니까 빨리 빨리 카운트 가려고 한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선발 전원 탈삼진 기록은) 다음에 잡아 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대어’ 잡으러 울산 간다

**내일 K리그1 울산현대와 경기
위기 탈출위해 승점 사냥 나서**

광주FC가 오는 5월 1일 오후 7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현대와 K리그1 2021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앞선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광주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잇달아 찾아온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한 뒤 후반 29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남긴 아쉬운 실점. 여기에 통한의 ‘오심’도 있었다.

전반 34분 펠리페가 페널티지역에서 좋은 역습 기회를 맞았지만, 홍정운의 파울에 넘어졌다.

파울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땅을 쳤던 광주는 이후 심판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오심으로 판정하면서 가슴을 쳤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광주는 위기 탈출을 위해 승점 사냥에 나선다.

상대는 ‘우승후보’ 2위 울산이다.

난적과의 승부지만 물러날 곳이 없다. 광주는 현재 승점 13점으로 리그 10위로 내려앉았다. 최하위 수원FC(승점 10)와도 3점 차에 불과하다.

지난 라운드 패배를 기록했지만, 광주의 수비는 굳건하다.

그 중심에 ‘괴물 골키퍼’ 윤보상이 있다. 윤보상은 올 시즌 11경기에 나와 편칭 20개(리그 2위), 선방 35개(리그 3위)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센터백 듀오 이한도와 알렉스 역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주장’ 김원식이 버티고 있는 중원의 힘도 여전하다.

헤이스가 광주 질주의 키를 쥐고 있다.

주포 펠리페가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상대의 거친 견제에 시달리고 있다. 헤이스를 중심으로 김주공, 엄지성 등 2선 자원들이 득점 행진에 가세해준다면 펠리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터질 듯 터지지 않는 헤이스의 특징은 광주 화력의 기록제가 될 전망이다.

중요한 순간 상대로 만나는 울산은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이자 리그 우승을 노리는 강호다.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조현우와 함께 윤빛가람, 이동준, 김인성, 원두재, 불투이스 등 화려한 멤버가 포진해 있다.

스타군단을 마주하게 됐지만, 광주는 강팀을 상대로 더 강했다.

지난 2라운드 홈경기에서 울산에 0-1로 졌지만 물러서지 않는 승부로 홈팬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었다.

지난 시즌에도 두 번이나 1-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마음 급한 울산을 울리기도 했었다. 최근 울산이 3경기에서 2무 1패로 고전하고 있는 점도 광주에는 호재다. 광주가 촘촘한 그물망 수비와 함께 빠른 역습으로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누아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맨시티, PSG에 2-1 역전승 UEFA 챔스 4강 1차전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 1차전에서 파리생제르맹(PSG)에 역전승을 거두고 기선을 제압했다.

맨시티는 2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케빈 디브라위너와 리야드 마흐레즈의 연속 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올 시즌 정구리그와 잉글랜드 리그컵, UCL까지 ‘트레블’을 노리는 맨시티는 이날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2015-2016시즌 이후 5년 만에 4강에 오른 맨시티는 사상 첫 UCL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